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Maersk, 금년 1월 세계 최다 '컨'선 715척 보유



### 이슈페이퍼

- 올해 주목해야 할 5대 글로벌 시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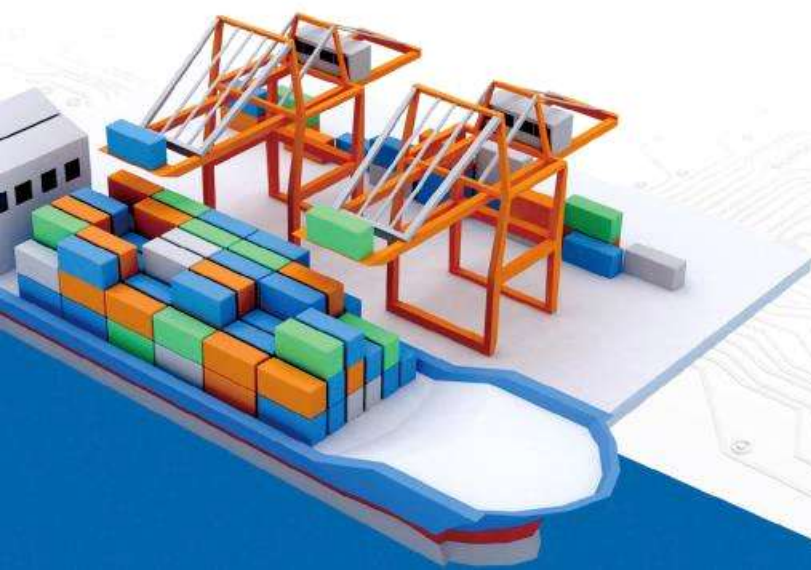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DSV사, 40억 달러에 Panalpina사 인수 제안
2. NYK, 'CDP2018' 기후변화 부문 최고 등급 A리스트 인증

### 명사 스피치

“우리나라는 해양박물관, 마리나시설, 연안친수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양 문화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, 해양문화 콘텐츠 및 관련 산업 등 해양문화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. 해운업의 진흥이나 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, 높은 수준의 해양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”

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
(2019. 1. 17. /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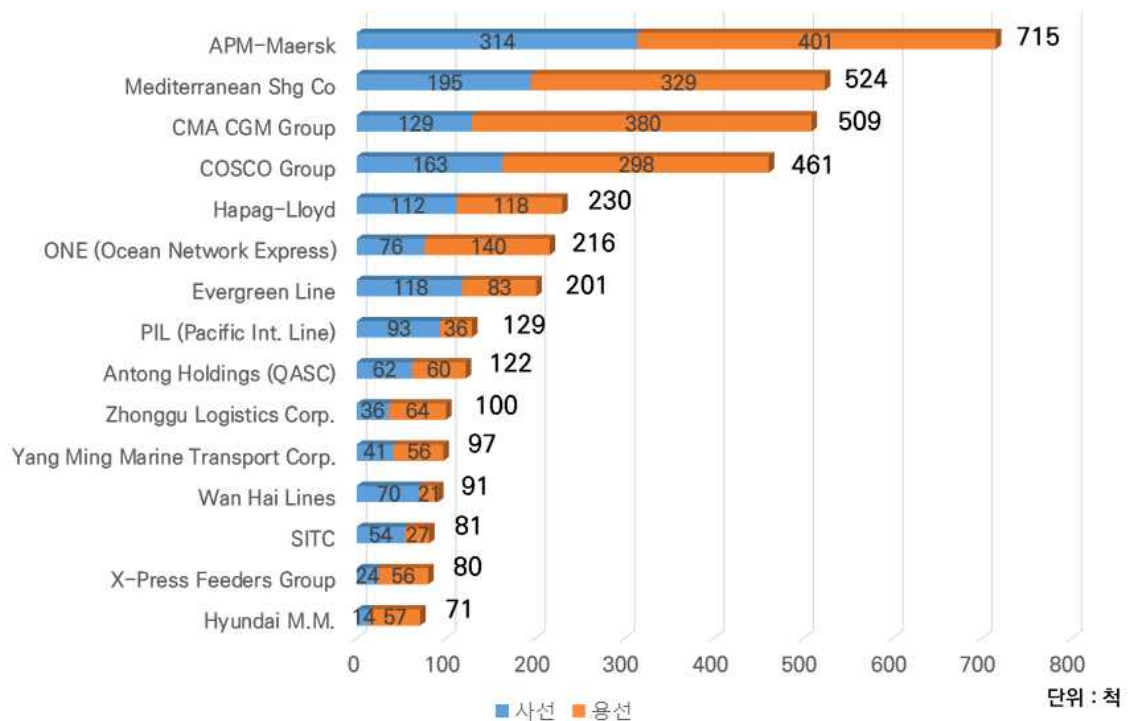

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# Maersk, 금년 1월 세계 최다 '컨'선 715척 보유

전 세계 컨테이너선 보유 현황



자료 : [www.statista.com](http://www.statista.com)  
주 : 2019년 1월 8일 기준

- 2019년 1월 8일 기준, 전 세계 컨테이너선 운항업체 중 APM-Maersk社가 가장 많은 총 715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 중  
- 이 중 314척은 사선, 401척은 용선이며, 동 선단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400백만TEU(점유율 17.8%)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됨
- APM-Maersk에 이어 MSC(Mediterranean Shg Co), CMA CGM, COSCO가 각각 524, 509, 461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참고자료 : [www.statista.com](http://www.statista.com)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[bjkim17@kmi.re.kr](mailto:bjkim17@kmi.re.kr)



## 이슈페이퍼

## 올해 주목해야 할 5대 글로벌 시장

## 1) 베트남

- 미·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및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 등으로 베트남이 아세안 핵심시장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음
  - 국제무역관리국(ITA ·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)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량은 지난 10년간 약 330% 증가해 미국의 핵심 교역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
  - 또한 최근 미·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
- 또한 캐나다, 호주, 일본 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을 통해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받고 있어 향후 아세안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
  - CPTPP는 베트남 GDP를 1.3%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
  - 또한 지적재산권과 위조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 내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협약을 통해 더 큰 보호 아래 사업을 영위할 것임
  -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, CPTPP 시행 등으로 베트남은 향후 공급사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

## 2) 멕시코

- 멕시코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경제국으로 크고 다양한 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특히 미국, 캐나다 등 북미시장에서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음
  - 멕시코의 경제 규모는 약 1조 1천억 달러로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, 다각화 된 경제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
  - 특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무역뿐만 아니라 사회,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을 보이고 있음
- USMCA 협약 및 멕시코 정부의 경제 개혁 등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음
  - NAFTA 재협정으로 알려진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협약(USMCA)은 에너지 및 제약기업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
  - 또한 미국의 미용 및 화장품 관련 소비자 시장의 중요한 교역국가로 향후 공급사슬 관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


### 3) 인도

- 인도는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,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치, 꾸준한 경제 성장률 등을 토대로 글로벌 물류 시장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음
  - 2017년 기준 인도와 미국의 무역액은 약 1,262억달러로 미국이 인도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자리 매김함
  - 또한 인도는 미국의 15번째 수출시장으로 올라섰으며 귀금속, 기계류, 항공, 의료 기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짐
  - 인도 경제는 2017년 7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환율 및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했으며, 인구의 65% 이상이 1980년 이후에 태어나 주요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### 4) 나이지리아

- 나이지리아는 많은 인구, 높은 인터넷 이용률 및 중산층의 성장 등으로 전자상거래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
  -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전 세계 인터넷 이용률 7위를 기록하는 등 아프리카 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
  - 최근 들어 점차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E-commerce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- 미국산 소비재 및 생활용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여러 미국 기업들이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함에 따라 공급시설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
### 5) 인도네시아

-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경제성장률 및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활성화 정책 등으로 향후 교역량 증대가 예상되며, 글로벌 물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  - 인도네시아는 현재 6%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 -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중산층의 증가로 아세안의 주요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
  -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역 활성화 및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으며, 향후 인도네시아 교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특히 인도네시아 항공 물류시장의 성장에 주목해야 함
  - 인도네시아 항공 물류시장은 20%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
  - 나이지리아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향후 핵심 소비재 시장이 될 전망임

■ 참고자료 : goglobal.dhl-usa.com, 2019.1.28./ www.export.gov, 2019.1.28.



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## DSV사, 40억 달러에 Panalpina사 인수 제안

- 덴마크계 3자물류업체 DSV사는 지난 16일 스위스계 3자물류 및 항공화물 운송업체인 Panalpina사의 이사회에 인수를 제안함
  - 이에 따라 Panalpina사는 DSV사의 인수 제안서를 검토 중이나 일각에서는 제안이 거부당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임
  - 특히 미국계 은행인 Stifel의 애널리스트 Bruce Chan씨는 그의 보고서에서 DSV사 소유권의 약 46%가 회사 설립자(Ernst Goehner Foundation)에 귀속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인수과정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
  - 또한 이번 DSV사의 Panalpina사 인수 제안은 DSV사가 스위스계 물류회사인 CEVA Logistics사 인수에 15억 달러로 입찰한 이후<sup>1)</sup>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
- 양사의 합병이 확정되면 새로운 국제 운송·물류회사로서 상당한 성장 가능성과 가치창출의 잠재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  - SCM 컨설팅회사인 Armstrong and Associates사의 대표 Evan Armstrong씨는 이번 합병이 이루어지면 2018년 기준 3PL기업 세계 6위였던 DSV사가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봄
  - Armstrong씨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경우 세계 4위의 Panalpina사와 세계 10위 DSV사가 합병을 통해 세계 2위로, 해상운송의 경우 각각 세계5위·6위인 Panalpina사와 DSV사가 세계 4위가 될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[www.logisticsmgmt.com](http://www.logisticsmgmt.com), 2019.1.17., [www.aircargonews.net](http://www.aircargonews.net), 2018.10.23.

김가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2, ghkim@kmi.re.kr

1) DSV사는 10월 23일 CEVA Logistics사의 인수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함



## NYK, 'CDP2018' 기후변화 부문 최고 등급 A리스트 인증

-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·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)가 정리한 'CDP2018'의 기후변화 부문에서 일본 해운선사 NYK가 최고 등급인 A리스트를 획득함
  - CDP는 2003년에 온실가스(GHG) 감축을 위해 금융기관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글로벌 프로젝트로 본부는 영국에 있음
  - 전 세계 주요 7천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'기후변화(Climate change, 2011년~)'·'수자원 보호(Water security, 2015년~)'·'삼림(Forests, 2016년~)' 등 3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A, A-, B, B-, C, C-, D, D-까지 8개 등급으로 리스트를 작성
  - CDP가 수집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간되고 있으며 전세계 금융기관이 투자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음
- 'CDP2018'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전 세계 126개사가 A리스트 인증을 받았음(그 중 일본 기업은 20개사)
  - NYK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운항 및 친환경 선박 개발 등 GHG 감축 노력이 CDP 기후변화 부문에서 높이 평가
  - NYK는 최적 운항 및 친환경 선박 개발 외에도 환경 데이터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재생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창출을 선도하는 '그린 비즈니스 팀' 신설, 외항해운 선사로서는 최초로 '그린 본드(환경 채권)'를 발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
  - 2019년 1월 22일 도쿄에서 개최된 CDP2018 기후변화 일본보고회에 미야모토 노리코 NYK 경영위원(상무이사)이 출석해 NYK의 환경보호 노력 및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
  - 일본 해운선사로는 NYK 외에 K-Line도 A리스트 인증 수여(MOL은 B리스트 인증)
- 'CDP2018' 조사에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총 233개사 응답했으며, 기후변화 부문에서 현대건설, 현대자동차, LG 디스플레이 등 3개사가 A리스트 인증을 받음
  - 현대상선·팬오션 등의 우리나라 해운선사는 평가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F리스트로 분류됨



2019년 1월 22일 도쿄에서 개최된 CDP2018 일본보고회 현장



자료 : <https://www.esg.quick.co.jp/news/983>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secure.marinavi.com/news/content?NewsNumber=242745>,  
<https://www.esg.quick.co.jp/news/983>,  
<https://www.cdp.net/en/scores#446647786929955804cc9a3a08ef1eb4>,  
2019.1.29.

한성일 부연구위원  
051-797-4781, han@kmi.re.kr